

익산시, 최고 청렴도시로 등극

도내 시 단위 중 최고 평가 받아... 종합 2등급 달성·청렴노력도 3개 부문 만점 등 '베제'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청렴 도시로 떠올랐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북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시는 전국의 시 단위 종합청렴도 평균 80.3점보다 0.8점 높은 81.1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받았다.

항목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 제감도'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계약, 인허가 등 익산시와 업무한 경험자들이 평가한 항목이다.

시는 외부제감도에서 지난해 74.3점보다 23% 가량 대폭 상승한 91.1점을 얻었으며, 외부제감도 감점지표이자 시민이 업무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경험' 부문은 '건조'로 평가받아 신뢰 행정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평가한 '내부제감도' 역시 지난해보다 1.3점 오르면서 인력 모두 청렴제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율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3개 세부 항목이 만점인 100점을 받아 전체 수준을 견인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 전체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시는 도내 최초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조직했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전담하는 '청렴감사계'를 주무팀으로 두는 등 감도 높은 정비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현을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실제 정 시장은 "비위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올해 시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 청렴 협의체를 만들었다. 부정부패 근절 분위기를 지역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 시는 공사 현장 등 지역 업체 50여 곳을 방문해 고충사항을 듣고 반부패 시책을 안내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전 부서를 돌며 부패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끝판왕'을 진행해 청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 다짐 메시지 릴레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추석·설 명절, 여름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았다.

정현을 시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민선8기 내내 추진해 온 청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며 "익산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꾸준한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집중해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민생안정 위한 현안 공유·논의

전북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개최...지역 발전 위해 '머리 맞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가 19일 전주 시 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회의'를 열고 핵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민생안정을 이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는 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내 시장·군수 8명이 참석해 시군별 주요 건의·협조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현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권한 이양 △전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권한 이양 등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심민 임실군수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정현을 협의회장은 "급변하는 불안 상황에서 여느 때보다 우리 14개 시군이 똘똘 뭉쳐 나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관리에 힘쓰고, 시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안전체험교육장 개관... 본격 운영 돌입

스마트안전산재예방에 특화된 7개 체험시설서 다양한 교육 진행

익산안전체험교육장이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익산안전체험교육장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교육장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227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연면적 4,385㎡,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스마트안전 산재예방에 특화된 체험교육시설이다. 체험관은 △산업안전 1·2 체험관 △

전기안전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스마트안전체험관 △가상안전체험관 △산업안전보건역사관 등 모두 7개관으로 구성됐다.

50종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운영인력 1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전국 산업현장 종사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한준호 국회의원 초청, '권력과 언론' 주제로 진행... 젊은 세대의 적극적 정치 참여 강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창호)는 지난 17일 제1학생회관 고촌콘홀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하여 '권력과 언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박규연 자율전공대학장이 사회를 맡았다. 행사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준호 의원은 특강에서 최근 정치 이슈,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정치 전략을 설명하며, 정치인으로서의 고민과 미래 전망을 청중과 나누었다.

특히 한 의원은 다양한 경력을 소개했다. 그는 수확과 생활 디자인을 전공한 후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미디어 정책 전문가를 거쳐 정치에 입문한 과



정을 설명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변화한 정치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정치 참여 증대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더 적극적

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언론사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황과 언론 자유의 위기를 다뤘다. 특히 "오늘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온 경험"을 토대로 젊은 세대에게 도전정신과 자기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당부했다.

참석한 한 학생은 "언론과 권력, 정치 사회에 대한 매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대학생들의 비전 제시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군산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장경호 익산시의원,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진행

익산시 평화동 제3중계펌프장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수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위탁업체의 복합악취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탁으로 관리되는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제3중계펌프장의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의원은 "수년 동안 평화동 제일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137건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악취의 주범을 제3중계펌프장으로 지목했다"며 "시청 소관부서에서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수차례 악취농도 측정이 기준치 이하이며, 악취의 원인으로 중계펌프장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을거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가 악취측정을 꾸준히 해왔지만 측정된 날 이외에도 악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고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이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수탁사와 시청의 믿을 수 없는 답변에 본 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측정 현장에 함께한 결과 기준치인 300보다 무려 7배 넘는 2,080으로 측정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검출되면서 악취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 검사 결과를 보면, 앞서 실시한 검사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은 제3중계펌프장에서 배출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왔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수면장애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의 대응에 주민들은 현재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